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현황과 정책 제언

‘세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OLED’

IHS 2016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1,274억불이었으며, OLED의 성장에 따라 2022년에는 1,487억불이 전망되고 있다. LCD 시장은 OLED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축소된 반면, OLED 비중은 '15년 10%에서 '22년 25%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최근 디스플레이 수급 및 가격 동향’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중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생산라인 증설은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 공급과잉 수준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26%, 2분기에는 2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015년 중국 생산라인 증가는 32인치와 같은 특정 패널에만 집중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인치 이상 패널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높은 공급과잉은 하반기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H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급과잉 수준이 3분기 8%, 4분기 6%까지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진 영향을 받은 대만 이노룩스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영향도 공급과잉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는 수급개선에 따른 LCD 패널가격 회복세가 기대된다. 비록 이번 LCD의 수급개선은 공급변수에 의해 시작됐지만 최근 중국,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55, 65인치 대형 TV 판매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분석’

LCD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중이나 중국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다. 중국은 '10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 4.1%에서 '15년 15.5%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4.8%에서 39.2%로 하락하였다. 2015년 글로벌 OLED 시장은 한국이 96.2%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형

OLED 및 초기단계인 대형 OLED 시장 모두 우리가 주도중이며, 특히 대형 OLED 시장의 선점을 통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 OLED는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경쟁국에서도 맹렬히 추격 중인 상황이다.

‘신산업 OLED의 중요성’

OLED는 ICT 융합을 통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OLED만이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건축, 광고, 자동차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21.4% 성장률로 시장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OLED TV의 대중화 및 Head Up Display, 스마트워치, 자동차용 등 신시장에 대한 OLED 침투율이 2015년 10%에서 2020년 22%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제언’

디스플레이가 신시장을 개척·창조할 수 있도록 중간재 기능을 넘어서는 성장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 OLED 기술을 이용하여 구부릴 수 있고(Flexible), 말 수 있고(Rollable), 접을 수 있는(Foldable), 그리고 투명한(Transparent)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다.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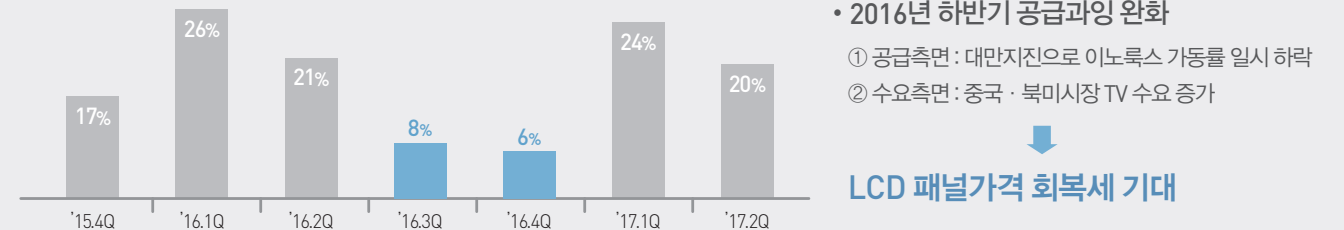
또한, 패널산업 대비 R&D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기술경쟁력에서 열세인 후방산업(소재·장비)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양성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조기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장비·부품 소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방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저자 _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 김현진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6 지역의 성장 동력,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는?

◎ 디스플레이 수급과 가격 동향



◎ 세계시장을 이끄는 “OLED”



◎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시장 점유율 ※ 단위 (%)

